

한국자동차연구원 전폭 지원...전남 강소기업 '질주'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 '2021 오토살롱위크'에서 라라클래식이 부스를 마련하고 클래식카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전남에 뿌리를 둔 자동차산업 강소기업인 라라클래식모터스 주식회사와 유일산업(주), (주)워커 등 3사는 자사 주력 제품을 선보이며 판로 개척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전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공동 추진하는 '첨단운송기기 부품산업 기업지원' 사업이 전남지역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산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기술 컨설팅·시제품 제작·시험 평가·홍보 전시 등 전(全)주기적 지원을 통해 창업과 기업 성장을 돕고, 첨단운송기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4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첨단운송기기 부품산업 기업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전남도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다. 매년 5억 원 수준의 사업비를 들여 시제품 제작 등 국내 첨단 운송기기 기업에 전주기적 지원을 한다. 사업 대상은 전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첨단운송기기 제조 기업으로 자동차·모빌리티·드론 관련 업체가 해당한다. 첨단운송기기 분야로 업종 전환 또는 신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도 지원한다.

기업지원 사업은 기술컨설팅→시제품 제작→시험·평가→홍보·전시 순으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 지원이 이뤄진 뒤 시제품 제작 단계에선 시제품 개발을 위한 재료 구매, 금형 제작, 가공비 등이 지원된다. 시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비도 사업비 내에서 지원된다. 시험 평가 단계에선 종합 성능 평가가 이뤄지고 홍보·전시 단계에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홍보가 이뤄진다.

기업지원 사업은 여타의 정부·지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우선 수행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선정 기업에 직접 기술지도를 한다.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시험 역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지원을 활용해 무상으로 진행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속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이 기업에 1대1로 매칭돼 애로 기술 해결과 제품 평가 및 개선 방향 도출까지 지원하면서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원 사업은 전남도가 2019

전남도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 첨단운송기기 부품산업 지원 성과

자동차·모빌리티·드론 업체 등에
2018년부터 매년 5억원씩 지원
기술 컨설팅·홍보·전시 '원스톱'

20개 기업 150여명 고용 창출
외지 기업 5곳 전남 유치 성과



국내 첫 클래식 스타일 전기차를 생산하는 라라클래식이 자체 개발한 극소형 전기차 마이크로레이서.

년 선포한 새천년 전남도의 비전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블루 이코노미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블루 트랜스포트(Transport) 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및 부품 개발, 자동차 연비 개선,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차 확대 등 미래형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남은 국제자동차경주장(F1 서킷)이 자리한 영암과 전기차 산업단지가 조성된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자동차·e-모빌리티 인프라가 축적돼 있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갖춰진 곳이다. 영광 대마산단은 지난 2014년 마이크로 모빌리티 핵심부품 연구기관 구축 사업을 필두로 관련 기업이 속속 동지를 틀며 e-모빌리티 핵심부품 기술 및 생산산업 생태계가 갖춰지고 있다. 2013년 자동차 튜닝벨리로 지정된 영암 F1 서킷 주변 지역은 2013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리를 잡으면서 관련 산업 육성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여건 아래 2018년 고용노동부와 전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첨단운송기기 부품산업 기업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8~2020년까지 시행 3년 동안 총 20개 기업이 지원을 받으면서 151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 보령에 소재한 대동EV(전기차, 비공기압 타이어 생산업체), 강원도 인제에 기반을 둔 (주)라라클래식모터스(수제작 클래식카 생산업체) 등 5개 기업(또는 공장)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성과도 올랐다. 에스에이치 등 3개 기업은 기존 업종에 더해 자동차 관련 사업에도 진출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관계자는 "고용창출 측면에서 보면 똑같이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조선업은 6.6명, 자동차튜닝 산업은 14.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온다는 한국은행 조사결과가 있다"며 "소량생산, 친환경 중심의 전남형 첨단운송기기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진=일산 킨텍스 박기용 기자 pboxer@

라라클래식모터스·유일산업·워커 국내 최대 '오토살롱위크' 사로잡다

전남에 뿌리를 둔 자동차산업 강소기업 3개 사가 국내 최대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로 꼽히는 '2021 오토살롱위크'에서 제품을 선보였다. 주인공은 라라클래식모터스 주식회사, 유일산업(주), (주)워커. 이들 기업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오토살롱위크에 참여해 클래식스타일 극소형 전기차, 비공기압 타이어, 터보차저 등 자사 주력 제품을 바이어와 마니아들에게 공개하며 판로 개척에 나섰다.

이들 기업은 모두 고용노동부와 전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전남 일자리 혁신성장을 위해 공동 추진하는 '첨단운송기기 부품산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지원, 시제품개발, 시험·평가, 마케팅 지원을 받으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국내 첫 클래식 전기차 생산-라라클래식모터스

국내 최초로 클래식 스타일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클래식카 마니아들에게 제법 이름이 알려졌다. 초소형 전기차(15kW 모터)보다 작은 모터를 사용하는 극소형 전기차를 만든다. 영암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클래식 스타일의 극소형 전기차 '마이크로레이서'를 최근 전남도청과 국제자동차경주장에 6대를 납품하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2인 탑승이 가능한 마이크로레이서의 가격은 2000~3000만원 수준. 차량 최고 시속은 40km로 설정됐지만 공장에서 약간의 작업을 더하면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

2019년 설립된 이 회사는 공정을 단축하고 중앙산 체제를 갖춰 내년 5월까지 차량 가격을 1000만원 초반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현재 자동차경주장 등 도로와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증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 김주용 대표는 "직접 6명과 영암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클래식 스타일 극소형 전기차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제품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 비공기압타이어 글로벌 리더 꿈꾼다-유일산업(주)



유일산업 마경업 대표이사

비공기압타이어 부문 차세대 '글로벌 리더 기업'을 목표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다. 고무타이어 협력업체로 고무제품과 폴리우레탄 원료 기반 제품을 생산한다. 주력 상품은 비공기압 타이어다. 비공기압 타이어는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미래형 타이어로 알려져 있다. 공기압타이어는 공기압축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이어 손상시 조향이 힘들어져 인명사고를 유발하고, 평시에도 공기압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반면 비공기압 타이어는 타이어 손상

시에도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공기압 관리의 필요가 없다. 유일산업은 현재 자율주행 전기차용 고안전 비공기압타이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이 회사는 고하중 설비를 들어올리거나 틈새에 삽입해 구조물을 별리는 작업에 쓰이는 리프팅백(LiftingBag) 생산 기업으로도 업계에 이름이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회에선 지게차와 소형전동차용 비공기압 타이어를 선보였다.

유일산업 마경업 대표이사는 "타이어 생산 설비의 핵심 구성품을 생산, 공급하며 다져온 기술로 자율주행차 시대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비공기압 타이어는 일반 차량, 바이크 등에 적용해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종류의 공기압타이어를 점진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튜닝시장 음지서 양지로-워커



이영대 (주)워커 대표

2018년 설립된 (주)워커는 튜닝 차량에 쓰이는 고성능부품 생산업체다. 지난 2019년 목포 신항만 산업단지에 제조공장을 설립해 제조설비와 연구개발 설비를 도입했다. 튜닝부품 Q마크 인증 획득 후, 2019년 한해 2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 2020년에는 3억7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0% 이상은 수출액이다. 이번 전시회에선 터보 차저와 소음기(일명 배기통)를 선보였다. 이들 제품은 튜닝부품 인증을 획득한 것들로 차량

구조변경 없이 바로 장착이 가능하다. 차량 튜닝·자동차 부품 시장은 대표적인 애프터마켓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꼽힌다. 전남도는 고용위기지역 대체 산업으로 고성능 부품을 비롯한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겨냥해 관련 산업을 육성 중이다.

이영대 대표는 "자동차 튜닝산업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시민들에게 불편감을 주는 튜닝카, 고객이 불편에 따른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튜닝이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튜닝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튜닝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